

조선 책장수 '책페', 전주 온다

책 박람회 '전주책페: 독립출판 북페어' 7월 1~2일 연화정도서관서 개최 독립출판 창작자·소규모 출판사·동네책방 등 67팀 참여 신작 한자리에

대한민국 독립출판권을 한자리에 모아 볼 수 있는 책 박람회 '2023 전주책페: 독립출판 북페어'가 오는 7월 1일과 2일 이틀간 전주덕진공원 내 연화정도서관에서 열린다.

전주에서 올해 처음 열리는 '2023 전주책페'는 전국의 독립출판 창작자와 소규모 출판사, 동네책방 등 종이책을 1종 이상 제작한 독립출판인 67팀이 모여 직접 만든 신작을 전시·판매하고 관련 강연을 여는 책 박람회다.

행사에 참여한 전국 독립출판인들은 첫날 연화정도서관 마당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 책페 선문문을 낭독하고, 책페 소개관을 제막하는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강연·체험·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게 된다.

특히 강연 프로그램은 △전주책페 그림엽서 색칠놀이 '책페 엽서 만들기' △행사장 내 책페를 찾는 게임 '책페가 나타났다!' △선글라스 두루마기, 갓 등 소품을 이용해 전주책페 캐릭터를 따라해보는 '나도 전주책페!' 등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이번 책 박람회의 이름은 조선시대 서적중개인인 '책페'에서 따왔다. 현대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책페'는 서점업이 금지됐던 조선시대에 막힌 유통의 흐름을 뚫고 책 문화를 이끌던 역사적인 책장수로, 단순한 상인이자보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독립출판인이자



'2023 전주책페' 포스터

지는 체험 프로그램은 △전주책페 그림엽서 색칠놀이 '책페 엽서 만들기' △행사장 내 책페를 찾는 게임 '책페가 나타났다!' △선글라스 두루마기, 갓 등 소품을 이용해 전주책페 캐릭터를 따라해보는 '나도 전주책페!' 등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이번 책 박람회의 이름은 조선시대 서적중개인인 '책페'에서 따왔다. 현대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책페'는 서점업이 금지됐던 조선시대에 막힌 유통의 흐름을 뚫고 책 문화를 이끌던 역사적인 책장수로, 단순한 상인이자보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독립출판인이자

마케터, 북큐레이터, 비평가, 이동식 서점인, 출판기획자 등 다양한 면모를 가진 책 엔터테인먼트로 볼 수 있다.

시는 전형과 관습에서 벗어나 개인이나 소수 그룹이 기획·창작·디자인·편집해 책을 만들고 직접 유통하는 '독립출판'의 취지와 '책페'가 맞아떨어졌다는 점에서 착안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시는 전주인의 독립출판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이번 박람회에 이어 '알관본(접주 옛 책)'과 '서포(책 만드는 서점)' 등 역사와 전통을 지닌 출판문화 도시 전주의 다양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계속 기울인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전주에서 처음 열리는 전주독립출판 북페어에 오셔서 전국에서 온 책페들의 실험정신과 창의성이 담긴 다양한 출판문화를 즐겨주시기 바란다"면서 "연꽃 향기 가득한 연화정에서 많은 분들이 전주의 또 다른 책문화를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 전주책페: 독립출판북페어' 행사 일정과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www.jbook.kr)과 인스타그램(@jbookfair)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30-1859)로 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

시범사업 선정 12개 지자체 참여 출범식 열려

시설에 입소하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경계선에 놓인 퇴원환자 등 후기 고령자들이 정든 집에서 존엄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전주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복지부 정책사업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출범식'이 28일 김현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과 김인태 전주시장을 비롯한 12개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관계자,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그동안 전주시는 지역 노인돌봄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선도사업을 통해 연간 입원비 200만 원 이상 절감, 삶의 질 향상 등 자체 연구용역(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입증된 효과성을 바탕으로 선도사업의 고도화 모형을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했으며, 선도사업을 통해 구축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이를 지속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75세 이상 시설·병원 입소·입원 경계선에 있는 △퇴원환자 △재가 장기요양 등급자 △등급의 A·B △노인 맞춤형 돌봄 중점대상자 등 지역 거주를 위해 추가 지원이 꼭 필요한 시민이다. 시는 오는 7월부터 2025년 말까지 총 25억 원을 투입해 총 2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미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대상자에게 제공할 △보건료 △돌

봄 △주거 △생활지원 △기타(거점공간운영, 스마트돌봄 등) 5개 분야 32개 서비스를 구축했으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제공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신청 및 접수수는 35개 동 통합지원 창구에서 이뤄지며, 건보공단을 비롯해 보건소, 복지관, 노인돌봄기관 등의 안내 창구를 통한 의뢰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는 각 창구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매일 담당자 교육과 간담회 등을 지속 실시하는 등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신청 및 의뢰된 대상자는 돌봄 필요도 조사 후 민·관 협력 기반의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케어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우범기 시장, '강한경제 전주' 위한 지원 요청

국회 찾아 주요 사업 소관 상임위원장·민주당 원내대표·국힘 예결위 의원 두루 만나 건의

우범기 전주시장이 국가예산 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를 상대로 '강한경제 전주'를 위한 내년도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28일 국회를 찾아 야당 지도부와 신임 상임위원장, 여당 예결위원 등을 상대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우 시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정부 각 부처에서 제출된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시 주요 사업들을 내년도 국가 예산에 최대한 담겨내기 위함이다. 기재부는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후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경기수원정)와 홍의표 문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중구성동구갑), 이용호 문체위 간사(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군), 김교홍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김철민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구을) 등을 만나 내년도 주요 핵심사업의 국가 예산 반영과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우 시장이 건의한 주요사업은 민선8기 핵심사업인 왕의공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주고도 지정 △후백제 역사문화의 연구·조사·보존·정비·활용을 위한 거점공간이 될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노년권 대표거점 공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주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 △지역 간 문화 격차 및 정보 양극화 해소를



우범기 전주시장은 28일 국회를 찾아 야당 지도부와 신임 상임위원장, 여당 예결위원 등을 상대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사진 왼쪽부터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범기 시장)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건립' 등이다.

또 광역도시 성장의 발판이 될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새만금~김제~전주 간 지방도 702호선 국도 승격 △전주 외곽순환도로 우아~신리 연결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우 시장은 이날 국회 방문에 앞서 지난 23일 전주를 찾은 김두관 국토위 의원에게도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시는 기재부 예산심사가 끝나는 오는 8월 말까지 정부예산안에 전주 발

전을 위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핵심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주시 현안 사업의 추진 당위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어필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날까지 전북도, 지역 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기재부 설득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전주의 대변력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새롭게 구성된 주요사업 국회 상임위의 예결위 위원에게 주요 사업을 사전 설명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7월부터 운영

영양사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확대

급식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전주지역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도 안전하고 균형 잡힌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게 됐다.

시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위생 및 영양 관리를 돕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돼 위생·영양 관리를 받고

있지만, 노인·장애인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그동안 급식 관리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위생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어린이와 노인·장애인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 제공을 도와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 운영하며,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된다. 센터는 향후 각 시설별 조리사와 요양보호사,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조리실 위생 안전 방문지도, 체계적인 식단 및 레시피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어린이와 노인·장애인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 제공을 도와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